

이곳, 남해에서 심포를 찍다.

# 지금 여기 남해#





보물섬 남해

남해군은 한반도 남해 연안의 중앙에 위치한 남해도와 창선도 두 큰 섬을 비롯한 유인도 5개와 무인도 7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4만 2천 명이다.

본섬인 남해도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여행하기 딱 좋은 기후 조건과 웅기종기 모인 섬, 크고 작은 산, 아름다운 해안선 등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남해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다양한 매력의 보물 같은 관광명소를 이 많아 “보물섬 남해”로 불린다.



## 남해로 오시는길 어서오시다!



### 2 창선-삼천포대교

총연장 3.4km에 이르는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 최초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남해 창선도와 삼천포 사이 3개의 섬을 연결하는 5개의 교량이 다리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관광명소이다.

### 1 남해대교 & 노량대교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 육지와 단절되어 있던 남해도를 처음으로 이어준 교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노량대교는 남해대교를 대체할 교량으로 2018년에 개통되었다. 세계 최초로 경사 주탑과 3차원 케이블 방식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 3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예정)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이제 남해군은 한반도의 끝이 아닌 영호남의 허브이자 남해안 관광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남해를 징검다리 삼아 서로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관광  
100년  
지정

1

여권없이 떠나는 독일여행

## 독일마을



독일마을은 과거 독일에서 열심히 일하며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교포들이 노후에 귀국 후 정착한 곳이다. 실제 독일에서 거주하던 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속 작은 독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3년 완공 이후 독일마을의 하얀벽과 오렌지빛 지붕은 남해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독일식 식당, 독일 맥주집, 독일 공방 등이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매년 10월경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다. 남해파독전시관에서는 파독광부·간호사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 원예예술촌



원예예술촌은 20여 명의 원예 인들이 모여 이룬 마을로, 아름답고 개성적인 21개소의 주택과 정원이 나라별 이미지와 테마를 살려 조성되어,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원예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조각 정원, 토피어리 정원 등 세계의 다양한 정원을 감상하며 느리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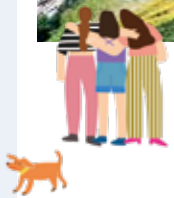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3위

## 가천다랭이마을



푸른 바다를 접한 산비탈을 일군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랭이 논(명승 제15호)이 있는 마을로 섬 특유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또 다른 자랑거리인 암수바위가 있다.

흡사 페루의 고산지대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다랭이마을의 그림 같은 풍경은, 사실 아픔에서 출발했다. 경사가 심하여 논을 일굴 수가 없어,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넘는 계단식 논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사진 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면 아담한 건물 사이로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이어지고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해안가 산책로도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 아난티 남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18홀 코스의 골프장은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푸른색 그린의 경관이 환상적이다. 150객실 스위트룸 리조트와 20개의 그랜드 빌라는 골프장과 바다를 바라보는 포근한 휴식을 제공한다. 서점과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부터 레스토랑까지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 인터널저니를 만나볼 수 있다.

3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일출

## 금산보리암



온갖 전설을 담은 기암괴석이 금강산을 빼어 닮았다 하여 소금강 혹은 남해 금강이라 불린다. 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이곳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또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보리암은 금산의 기암절벽 영봉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이다. 보리암의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이지만, 금산 일출은 3년 동안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하니 날씨 컨디션도 잘 살펴야 한다.

함께  
가볼만한  
곳

## 미국마을



남해에서 미국의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 돌아와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미국식 목재구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전통주택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에 위치한 펜션을 이용해 보자.

4

고운 은빛 모래에 추억을 담그다.

## 상주는 모래비치



눈 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 모양으로 감싸고 있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도 따뜻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일품이다. 은가루처럼 밝게 반짝이는 백사장은 비단과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하고, 바닷물은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비단결 같은 모래는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 사이로 흘러 간지럼을 탄다. 해변 뒤편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숲 뒤로 야영장이 있고, 맛집과 다양한 매력의 카페들 역시 즐지어 자리하고 있어 가족뿐 아니라 친구 연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해변이다.

함께  
가볼만한  
곳

## 송정솔바람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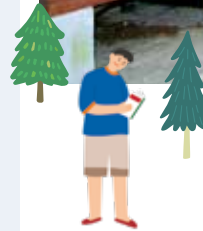


송정솔바람해변은 특색 있는 남국의 정취를 지닌 환경적으로 완벽한 해수욕장이다. 한려수도를 바라보는 해변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광이 단연 압권이다. 해수욕장의 주변은 바위로 이뤄진 해안선과 100년 이상 된 해송이 길게 자리 잡고 있다.

5

치유와 힐링의 시간입니다.

## 국립편백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에 조성된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 및 삼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욕 휴식공간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펜션과 캠핑장 시설 또한 갖추고 있어 남해 자연 속에서 쉬어가기 좋은 장소로 뽀뽀한 나무 만큼 이곳을 찾으려는 사람도 많아 전국적으로 예약률이 상위권에 드는 곳이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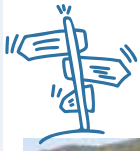
함께  
가볼만한  
곳

## 남해양떼목장



새하얀 양 떼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직접 양들 에게 먹이를 주고 교감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해 주는 능률한 자태의 양몰이 건들도 만나볼 수 있다. 광활한 초원을 노니는 양 떼와 마주할 수 있는 산책로와 시원한 계곡은 천천히 둘러보면 좋다.

- 남해양떼목장 양마르뜨
-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
- 남해양떼목장 양모리학교



6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 이순신순국공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절규가 맴도는 곳, 이순신순국공원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사적 232호로 지정된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외에도 이순신상영관, 호국광장, 관음포 광장 등이 있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둘러야 할 성지이자 역사의 현장이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큰 광장과 분수대 등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다. 이순신영상관에는 임진왜란에 관한 다양한 전시와 노량해전에 관한 입체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활쏘기와 투호 등 전통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 남해각



1975년에 건립된 이후 남해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이자 휴게공간이었다. 지역 명소였지만 오랜기간 방치되었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남해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2021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7

'엄마의 길' 남해바래길 231km(본선 16개 코스, 지선 3개 코스)

## 남해바래길



500년 전부터 '꽃밭'이란 별칭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남해 섬을 두 발로 걷는 길이 '남해바래길'이다. 2010년 첫 문을 연 남해바래길은 2020년 개통 10년을 맞아, '남해바래길2.0'으로 리모델링되었다. 남해바래길 2.0은 남해군 10개 읍면을 모두 경유하는 231km(본선 16개 코스, 지선 3개 코스)의 중장거리 걷기여행길로 노선과 코스가 추가되었으며 기존 노선 조정, 길 로고, 안내 체계, 운영시스템까지 고도화되었다. '바래'라는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조개, 미역, 고등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토속어이다.

함께  
가볼만한  
곳

### 앵강다숲마을



앵강만은 남해가 가둔 2개의 바다 중 남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발음도 귀여운 앵강은 누운 항아리를 닮아 그리 부르기도 하고 강처럼 잔잔한 바다에 이는 파도 소리가 꾀꼬리 울음을 닮아 부르기도 한다. 보석 같은 숲과 푸른 바다가 만난 보물 같은 마을. 특히 신전 숲 야생화 관광단지는 청정한 생태환경과 수려한 풍광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8

바다 위를 걷다!

## 설리스크아이워크



최근에 문을 연 핫플레이스 전망대로 설리해수욕장 뒤편 언덕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전망대 자체의 형태와 규모가 어마어마해 저 멀리 상주 쪽에서도 눈에 띌 정도이다. 일명 '하늘 그네'라 불리는 스카이워크 그네는 높이 38m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명물, '발리섬의 그네'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하늘과 맞닿고 발아래로는 바다로 풍덩 빠져 들것만 같은 극강의 아찔함을 준다. 아간에는 스카이워크 전체에서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전망대 어느 곳에서도 멋진 일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인기드라마 '여신강림'의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함께  
가볼만한  
곳

## 물미해안전망대



대한민국 최남단 남해를 아름답게 비추는 등대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내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초호화 고급 크루즈를 탄 듯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60도 파노라마 바다 조망을 자랑하고 있다. 유리로 된 하늘길을 직접 걸어보고, 절벽 위 수려한 남해바다 조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9

여기서 인생샷을 만나다.

## 섬이정원



남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층층 계단의 다랑이 논에 나무와 꽃을 심어 조성한 유럽식 정원으로 가꾼 민간 수목원이다. 돌담과 연못, 나무와 꽃들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층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경관과 푸르른 남해 바다가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 덕에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9개의 작은 정원들이 방의 개념으로 분할돼 각 방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서로 어울려 색다른 정경을 보여준다. 사계절 다르게 각기 피어나는 꽃과 오솔길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카메라 프레임이 향하는 어떤 곳이는 인생샷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가볼만한  
곳

## 토피아랜드



전국최초이자 유일한 토피어리 정원인 '토피아랜드'는 나무에 여러 형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나무의 존재 자체로 힐링 모먼트를 안겨주는 완전한 초록의 숲이다. 토피아랜드(topia land)의 토피아란 라틴어로 '풍경화'라는 뜻과 '원예, 정원 가꾸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10

돌창고, 레트로 감성으로 되살아나다.

## 돌창고프로젝트



남해 사람들에게는 양곡과 비료를 보관할 튼튼한 창고가 필요했지만, 섬이기에 시멘트와 철근은 구하기 쉽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돌을 나르며 지었고, 완성된 창고는 마을 단위 양곡과 비료를 저장하는 공동 창고로 쓰였다. 이것이 바로 돌창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돌창고는 기능이 쇠퇴하고 하나둘씩 방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물결이 찾아왔다. 변화를 선택한 공간은 다시 태어났다. 돌창고 프로젝트로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으로 재창조되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공간의 추억을 안기고 있다.

함께  
가을만만  
곳

## 장항숲



장항바닷가 앞 숲길에 나무와 바다, 맛있는 먹거리들과 쉬어갈 수 있는 핫플, 사진찍기 너무나 이쁜 구석구석 반짝이는 곳이다. 그냥 보기엔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지만 조금씩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하나둘씩 생겨난 다채로운 매력의 카페와 숲들은 여행자들의 입소문에 불을 지피고 있다.

## 그 밖의 관광지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물건방조어부림

2천여 그루의 방풍림으로 조성된 울창한 수림이 초승달 모양을 그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숲과 어우러진 몽돌 해안은 남해 바다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독특함을 자랑한다. 방조어부림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휴양공간  
엘림마리나&리조트

국내 최초 마리나&리조트인 엘림마리나&리조트가 2020년 북한 휴양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액티비티 요트체험과 지중해식 음식, 그리고 콘서트홀과 바이크 전시장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아름다운 남해바다를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원시 어업 형태의  
지족 죽방렴

대나무 발을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해 V자로 벌려두는 원시 어업인 죽방렴은 시속 13km의 남해 바다의 빠른 유속을 이용한 포획방식이다. 죽방렴에서 잡은 멸치는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이 살아 있어 전국 최상품으로 꼽힌다.

휴양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뮤지엄남해 & 동창선아트스테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최근 개관한 뮤지엄으로 휴양과 함께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1층에 유료 전시공간과 다목적공간(카페), 2층에 작가 창작실, 미술 도서관 등을 갖췄다. 야외에는 캠핑장과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운영된다.



## 그 밖의 관광지



조선 시대 유배되었던 남해의 역사와 문화

## 유배문학관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유배 문학관으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공간이다. 조선 시대 유배되었던 남해의 문화와 역사로 가득 차 있다. 주제별 전시관을 통해 유배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다양한 체험전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말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 보물섬 승마랜드

조선왕조 시기 전역이 목장으로 설치되었던 창선도에 조성된 공공 승마장. 쉽게 접하기 힘든 말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말과 하나 되어 원형 마장을 돌아보는 승마체험과 먹이 주기 등 전문 교관님들의 인솔, 교육하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 남해 전통시장

청정 바다에서 잡아 올린 즉방멸치에서부터 전복, 왕새우,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 남해의 차가운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마늘과 보물초(남해시금치), 창선고사리, 그리고 남해의 자랑인 남해유자와 보물섬한우까지. 여기에 신선한 회까지 바로 포장 가능하고 시장 안쪽에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남해읍 중심에 위치)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 용문사 템플스테이

해발 650m 호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이자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절이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 그 밖의 관광지



빛을 담은 마을

## 빛담촌

조용하고 아늑한 이 마을은 2011년 남해군이 남면 선구리 향촌마을에 조성한 펜션 단지이다. 남해 빛담촌은 '빛을 담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건물과 쪽빛 바다, 길을 따라 피어있는 꽃나무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 마치 지중해에 온 듯하다.



추정수령 500년 된

## 창선 단향 왕후박나무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단향 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무려 추정 수령 500년의 왕후박나무로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동산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대자연의 힘에 숙연해짐을 느낀다. 어린왕자에게 바오밥나무가 있다면 남해엔 왕후박나무가 있다.



파스텔 톤의 해질녘 풍경

## 사촌해수욕장

북적이는 것보다는 파스텔 톤의 해질녘 풍경을 바라보며 느린 여유를 갖고자 하는 낭만 연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차박'이 편리한 해수욕장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약 20여 동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송림 야영장이 있다.



갤러리와 체험공방이 있는

## 해오름 예술촌

은점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에 위치한 해오름예술촌은 리모델링된 학교 공간들을 옛 추억을 담은 전시장과 다양한 분야의 주제전이 열리는 갤러리, 작가들의 작업 공간, 전문문화체험공방, 가족 나들이 장소로 꾸몄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즐거운 소풍 같은 하루를 선물하는 공간이다.

## 남해의 축제



6월

## 보물섬 마늘 &amp; 한우축제

남해 대표 특산물인 보물섬 마늘과 한우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 해풍을 맞고 자라 알싸한 향이 좋은 남해 마늘과 청정 환경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남해 한우는 남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5월

##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남해의 나폴리라 불리는 미조항은 멸치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남해 멸치 맛이 가장 좋은 5월에 개최한다. 멸치 즉석 경매, 멸치 찢갈 담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루 두 번 어부들의 멸치털이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 멸치요리도 맛볼 수 있다.



8월

##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연중 남해가 가장 뜨거워지는 기간이다. 남해를 대표하는 해변 상주은모래비치에서 뮤직페스티벌과 EDM 파티, 송림치맥파티, 해양레저 체험, 바다 위의 비치시네마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다. 힙&트렌디 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제



10월

## 독일마을 맥주축제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Okttoberfest)를 모테로 한 축제. 2010년에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맥주 축제이다. 이색적인 독일문화를 체험하고, 정통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관광시대를 주문하는 뉴 노멀시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2021년 4월 출범한 기초지자체 최초 관광전문재단입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관광시대를 주문하는 뉴 노멀시대(New Normal), 남해관광 싱크탱크이자 관광 컨트롤 타워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국민 관광지 남해를 남해 다운 관광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으로 '리브랜딩'하여 미소 짓는 남해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발맞추어 한국형 남해 DMO(지역관광추진조직)를 구축하여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 지역 관광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섬 자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남해를 '심표'가 있는 안전한 국민 여행지로 만들어 치료받는 웰니스 남해 관광을 꽃피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꽃길을 걸으며, 탄소 제로 '그린랜드' 남해, 액티비티 체험과 한국 속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통해 '남해로 오시다', 남해가 여행자 여러분을 마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愛**  
남해#

나를 찾는 특별한 공간, 남해

남해가 남해라서 좋다.

남해에 스며들다.

남해에 여행을 담다.

